

권역별 선전기초학교 열기 뜨거워

지부 4층에서 글쓰기 사진 촬영 등 교육 진행돼



지부 4층 대회의실(노동복지회관)이 선전홍보담당자로 가득 찼다. 영남권 선전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합 권역별 선전기초학교가 열렸기 때문. 가득 찬 대회의실은 열기도 뜨거웠다.

선전기초학교는 오후 1시경부터 시작했다. 1교시 교육은 선전홍보 활동의 출발 글쓰기 강좌였다. 강의는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가 했다. 교육내용은 글쓰기 기본인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였다. 참가자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사

교육에 집중했다. 글쓰기 교육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에서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도 확인했다. 이어진 교육은 사진영상 촬영 기초였다. 2교시도 매일노동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기훈 기자가 했다. 교육은 사진 촬영 기초를 중심으로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사진 촬영 팀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려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기억

하기 위해 메모를 위한 손놀림을 빠르게 했다. 지부 참가자들 동기도 다양했다. 지회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새로 담당자가 되어 배움 열정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선전기초교육은 오후 5시경 끝났다. 권역별 선전기초학교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 진행결과 평가와 설문 등을 통해 차기 교육 주제도 마련 추진될 예정이다. AI활용에 대한 교육도 검토되고 있다.

[2026 세계노동절부산대회 4행시 공모전]

시제 : 민주노총, 원청교섭, 지방선거, 내란청산 (시제 중에 하나 선택)

기간 : 4월 1일 ~ 4월 24일

대상 : 민주노총부산본부 조합원 누구나

신청방법 :

<https://bit.ly/2026세계노동절부산대회4행시공모전>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

- 수상 : 선착순 30명에게 커피쿠폰 증정

1등 1명(5만원 상품권)

2등 2명(3만원 상품권)

대회 당일 발표 및 상품 수여

입상 4행시는 노동절 당일에 발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쟁취! 노동공동심 사회대개혁 실현!

2026 세계노동절 부산대회

5월 1일(금) 14시 | 서면 전포대로
(전포역 7번출구에서 양정 방향 도보로 10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노동절 삼행시 공모

노동절 여러분!

노동절

대 지나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제니어 노동절

- 점수기간 - 2026. 3. 23. ~ 4. 23.
- 점수 방법 - QR코드/점부링크 접속
- 결과발표 - 2026. 4. 27.
- 20명 선정 - 민주노총 굿포넷트 동영상으로 제작

QR코드

←삼행시 공모전 참여하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가족과 함께하는 봄나드리 트레킹

2026년 4월 11일 (토) 10:30
태종대 입구(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29-1)
식사 장소 : 태종사 맞은편 운동장
참가 기념품 : 양우산 / OX퀴즈 경품 추첨

태종대 위치도

원청교섭, 원하청 노동자 함께 대응한다

원청교섭 원·하청 단위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담회 열어
교섭 진행 현황 및 대응 계획 발표



▲간담회에 앞서 참가자들이 “원청교섭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금속노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원청교섭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원청교섭 원·하청 단위 대표자가 공동 기자회견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통해 교섭 진행현황과 실태를 알리고 향후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간담회는 일부 언론에서 원하청 ‘노노갈등’을 부각 왜곡하고 공포조성에 선을 긋기 위해서 열린 것.

이날 간담회에서 금속노조는 세부적으로 원청사별 교섭 공고 여부 현

황, 교섭단위 분리신청 및 진행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현장발언을 통해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박상만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원하청 노동자는 원청교섭에 함께 대응할 것”이며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 많은 기사 '금속노동자'](#)



태경산업 노조 탄압, 투쟁으로 끝낼 것

금속노조 결의대회, 작은 사업장 권리 쟁취할 것



금속노조 영남권 간부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집결했다. 태경산업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고 위협받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노동조합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 나아가 정부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정신을 지키는 투쟁.

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탄압분쇄! 태경산업지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서 이병철 태경산업현장위원회 대표는 “사측은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이밀며 단협을 해지하고,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해고 위협으로 압박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태경산업 투쟁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선언하는 투쟁임도 강조했다.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 노동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개악 시도, 일방 해지에 맞서 싸우고 있다.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를 향해 회사는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

[전체기사 '금속노동자'](#)